

日本建築士會聯合會 訪問



일본건축사회연합회 건물 앞에서 기념촬영

日本建築士會聯合會의 초청을 받아 8월10일과 11일 KAL기편으로 日本建築界 視察의 길에 올랐던 視察團 1진 18명, 2진 17명등 35명이 7박8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8월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귀국하였다.

日本 건축계 시찰중 김형인 이사를 비롯, 박용한, 김정웅, 김세호, 최용정, 설영웅, 김동환,곽정석 회원과 서울지부 운용진 사무국장, 본부 김성배 기술부장등 10명은 8월12일 오후 3시 도쿄 소재 日本建築士會聯合會를 예방하였으며 오다 회장, 가나가와 부회장, 와다 전무이사, 이노 이사, 호리우찌 도쿄 건축회장, 하기와다 도쿄 전무이사, 이도 건축기술보급소 역원, 마찌다 사무국장 등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양국 인사들은 회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각기 자기나라 인사에 대한 소개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선물교환 후 오후 4시경 간담회를 마쳤다.

다음은 간담회 석상에서 양국인사들이 나눈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오 다 : 여러분들의 본연합회 방문을 환영하며 지난 3월 訪韓시 베풀어준 환대에 감사한다.

귀국의 建築士法이 잘 된 것이 부러웠다. 우리 법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는데 귀국의 建築士法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곧 日本 國立劇場 설계를 현상공모할 예정이므로 돌아가면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란다.

김형인 : 초청해 주어서 감사하다. 오다 회장께서 지난번 우리 협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주어 감사했다. 자세한 말씀은 오웅석 회장께서 귀연합회를 방문하여 말씀 드릴 예정이므로 이만 인사에 대신 한다.

일본 방문단 36명중 10명이 귀연합회를 방문하였다.

여기 개정된 우리 건축사법을 가지고 왔다. 참고하기 바란다.

오 다 : 각국의 법을 수집하던 차인데 개정된 법을 보내주어 대단히 고맙다.

일본은 설비기술자격이 별도로 없는데

앞으로는 할 예정이다. 귀국의 士法 내용은 어떤 것인가?

박용한 : 우리는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설비 기술사가 있다.

김형인 :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체제 갱신, 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 분리 등 士法改正 主要内容 소개)

와 다 : 일본의 보수기준은 몇년 전 없어졌다가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어 새로운 보수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설계 감리 및 설비업무로 나누어 건축사의 노고에 따라 보수기준을 구분하였다.

김형인 : 우리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해서 정부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오 다 : 일본은 설계주문할 때 입찰을 허용하고 있다.

김형인 : 우리는 입찰에 참가하면 윤리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일본측 : (이구동성으로) 부럽다.

김형인 : 그렇지만 지명현상및 공개현상등 현상공모제도는 있다.

이 노 : 일본의 입찰제도는 민간에게는 없고 정부시행공사에서만 있으며 없애달라고 해도 없애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요코하마 현에만 입찰제도가 없다.

김형인 : 우리 협회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귀국의 건축사법, 보수기준, 연합회 규정 등을 필요로 한다.

마찌다 : 보수기준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어제 인쇄가 되어 준비된 것이 있으며 기타 준비된 자료를 드리겠다.

「오다」 회장 환영사

